

리얼리티 쇼에서의 노인 재현과 수용 연구 : 젠더 재현의 차이를 중심으로

The Representations and Audience Reception of the Elderly in Reality Shows :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오은혜*, 김수정**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Eun-Hye Oh(kiwieh486@gmail.com)*, Sujeong Kim(sutalk@empal.com)**

요약

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대중문화가 재현하는 노인의 모습과 그 속에 드러나는 젠더 차이는 노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연예인 노인 출연자 중심의 리얼리티 쇼들을 대상으로, 젠더 측면에 주목해 노인 재현의 양상과 해독을 텍스트 분석과 수용자 분석을 통해 고찰했다.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노인 재현은 소수 부정적인 기존 이미지와 대체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성노인들은 '여행'을 젊음으로 보는데 비해 여성노인은 일상의 역할들로부터 '해방'으로 인식했으며, 남성은 '노인 됨'을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여성들은 가족관계와 외모의 퇴락 측면에서 파악하는 젠더 차이가 흥미롭게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남성노인은 가부장제적인 남성성을 전복하는 이미지 등 다양화된 재현이 이뤄진 반면, 여성노인은 전통적 여성상 및 외모 중심의 재현을 통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주로 재생산되고 있었다. 수용자 해독에서는 리얼리티 장르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젠더에 대한 기존 관념이 수용자의 해독에 영향을 미쳤으며, 수용자들에게 내면화된 가부장제적 남녀 차별적인 태도들이 작용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 중심어 : | 노인 리얼리티 쇼 | 젠더 | 노인 | 남성성 | 여성성 | <꽃보다 할배> | <꽃보다누나> | <마마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presentations of elders in reality shows focusing on gender disparity by employing a textual analysis and audience interviews. According to findings, as for elderly men, various images are presented while as for elderly women, traditional gender images are mainly reproduced. In the audience reception, the audiences' understanding of genres and their preexisting gender perceptions have important roles on their interpretations in the ways of producing gender discriminated meanings.

■ keyword : | Elders Reality Show | Gender | the Elderly | Gender | Femininity | Masculinity | <Granpa over Flowers> | <Sister over Flowers> | <Mamado> |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을 토대로 하여 이를 대폭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I. 서론

리얼리티 쇼는 지난 20년간 서구 텔레비전의 지형을 바꾸며 글로벌 장르로 부상했고, 한국에서도 인기 장르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소재 및 주제의 리얼리티 쇼가 속속 제작되었고, 이 중 노인 출연진을 내세운 리얼리티 쇼가 젊은 출연자 중심의 리얼리티 쇼들을 뚫고 대중의 주목을 끌었다. <꽃보다 할배(tvN)>가 바로 그것이다. 70세가 넘는 네 명의 노인 남성이 주축이 된 리얼리티 쇼가 케이블방송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균 9 퍼센트에 이르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2013년 노인 중심의 리얼리티 쇼의 성공을 알렸다[1]. 이후 중노년 여배우 버전인 <꽃보다 누나(tvN)>와 <엄마가 있는 풍경 마마도(KBS2)>가 연달아 제작·방영되기 이르렀다. 세 리얼리티 쇼의 등장은 이례적인 소재를 다룬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넘어, 노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고령화 시대의 한국사회라는 맥락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즉,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노인이 어떤 존재로 규정되고 묘사되는가라는 문제는 노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 형성에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진지한 학문적 탐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에서는 노인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있어왔지만, 한국의 경우는 최근 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서구의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텔레비전에서 노인에 대한 재현은 긍정적인 경우(예를 들어, 광고에서 능력 있는 소비자)보다는 뉴스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비생산적이며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존재로 묘사되는 경향을 드러낸다[2][3]. 한국 역시 주로 뉴스와 드라마 등에서 노인이 부정적으로 재현된 것을 볼 수 있다[4]. 그러나 2010년 이후 한국 다큐멘터리와 예능 장르들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노인의 이미지 등, 긍정적인 재현이 이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조금씩 제시되기 시작했다[5]. 특히 이러한 주목은 <꽃보다 할배>의 대중적인 성공과 함께 더욱 관심을 끈다.

그러나 <꽃보다 할배>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6][7] 단일 프로그램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남성’ 노인이라는 젠더 측면을 간과하고 노인이라는 일반적 범주에서 긍정적인 재현 가능성에만 초점을 두는 한계를 보인다.

이는 흔히 노인을 나이에 의해 규정되는 동질적인 단일 집단으로 인식하며 젠더가 없는 무성성 존재인 듯 취급하는 사회적 관습과도 무관하지 않다[8]. 즉, 노인들에 대한 표상과 태도 역시 젠더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고 탐구될 필요가 있다. 최근 ‘빈곤의 여성화’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위험과 문제들은 결코 젠더와 무관하게 동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노인의 현실과 노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미디어에서의 노인 재현을 젠더 차원에서 주목하는 연구, 특히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직접적으로 비교 고찰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리얼리티 쇼에서 노인이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젠더에 따른 차이의 측면에 주목해 고찰한다. 특히 리얼리티 쇼는 대본 없이 진행되는 장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오락적인 재미뿐만 아니라 실재감을 제공한다. 따라서 리얼리티 쇼라는 장르가 노인의 재현에 갖는 장점과 한계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노인을 다룬 리얼리티 쇼를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 역시 함께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과 사용자 분석을 함께 수행한다.

II.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노인 관련 담론과 젠더 차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노화에 대한 관념과 태도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이는 노화가 생물학적 연령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연령’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장 아메리(Améry)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구조에 기초한 ‘사회적 연령’은 젊음과 물질을 소유할 수 없는 상태를 ‘나이 들’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평가하는 ‘연령주의(ageism)’가 현대사회에 팽배하게 된다고 주장한다[9]. 시몬 드 보부아르(Beauvoir) 역시 현대 소비주의 사회에서 노인은 무력하고, 비생산적이며, 시대에 뒤쳐진 존재로 여겨져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한다[10].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사회는 장

유유서의 유교문화 속에서 연장자, 특히 노인을 존중하는 전통과 관습을 지녀왔지만 급속한 자본주의의 성장과 핵가족화를 겪으면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급속히 변화되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노인을 불편하거나 안쓰러운 존재로 또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다[8]. 즉, 노인은 보살피고 보호되어야 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노인 스스로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11][12].

그러나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담론 속에서 이해되고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크레쿨라(Krekulla)에 따르면 여성노인은 정체성, 노화, 그리고 호칭에 있어서 차별적인 취급을 받는다.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남성은 본질적인 존재인데 반해 여성은 비본질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또한 남성은 성취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반해 여성은 외모를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노화의 진행은 남성노인에게서 보다 여성노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여성은 누군가의 가족이나 부모로서 호칭됨으로써, 독립적인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13].

이처럼 노인에 대한 담론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주변적인 위치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사회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여성노인은 남편의 보필과 가사노동 뿐 아니라 자식을 대신해서 손주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활동에서 물러나 있는 남성노인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서 무력하고 남성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8][12]. 그렇다면 이러한 담론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디어에서 노인은 어떻게 재현되고 있고, 또 그것은 젠더에 따라 과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텔레비전에서의 노인 재현과 젠더적인 특성

현대사회에서 텔레비전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기구이자 문화장치라는 점에서 텔레비전에서 노인이 어떻게 재현되었는가는 노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광고,

뉴스, 드라마 등 다양한 미디어와 장르에서 각각 노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연구되어 왔다.

먼저 광고에서 노인은 병적인 대상 또는 돌봄의 대상으로 그려지며, 유약하다는 담론이 지배적으로 전달된다[14][15]. 그러나 최근 들어 광고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노인의 모습이 묘사되며 조금씩 긍정적인 노인 재현이 등장하고 있다[5][15].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인 계층이라는 재현이 휴먼 다큐멘터리에서도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다[5]. 그러나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노인이 질병, 주거, 빈곤 등과 연관되어 사회적 문제를 지닌 인물로 다뤄짐으로써, 부정적으로 재현된다[5][16]. 이에 비해 노인이 출연진으로 다수 등장하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노인의 재현은 양가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노인 계층이 경제적 여유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건강하고 행복한 집단으로 재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화’ 자체를 ‘비정상’이거나 질병처럼 취급하며 최대한 피해야 하는 과정으로 다뤄져 부정적인 특성을 드러낸다[17]. 드라마의 경우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를 배경으로 삼는 작품이 많기 때문에, 흔히 노인이 연장자라는 지위를 통해 권력을 지닌 인물로 표상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존경받을만한 인물이 아니라 현세대 문화에 뒤처지거나, 폭력적이거나 권위적인 이미지로 제시되기도 한다[4].

텔레비전에서 노인 재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노인은 생산자이기보다는 주변인의 위치로 정형화되고 소외된 존재로 묘사됨으로써, 아직까지 부정적인 재현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미디어에서 노인에 대한 재현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적 및 사회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재현 역시 늘어나고 있다. 셋째, 아직까지 노인의 재현은 가부장적 가족 구성원이라는 테두리를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차이를 지닌 집단으로서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노인 재현에 있어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전반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들에 의해 드러난다. 광고에서 재현을 보면, 남성노인이 직장 내 높

은 지위에서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여성노인은 현저히 낮은 사회적 지위에서, 의존적인 성격을 지닌 보호대상으로 주로 묘사된다[15]. 뉴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다수의 노인이 공통적으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존재로 재현되지만, 여성노인은 성범죄의 피해자나 헌신적 삶을 살아온 할머니 또는 어머니로 묘사되어 남성노인보다 더욱 유약하거나 희생적 존재라는 프레임 아래 다루인다[12]. 다른 장르에 비해 드라마는 여성노인에 대한 재현이 꾸준히 변화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카리스마를 지닌 여성 가장이거나 모성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노년의 어머니 모습이 그것이다[19]. 그렇다면, 실재를 표방하고 있는 리얼리티 쇼에서 노인 재현은 어떠한 상황일까? 다음 절에서 리얼리티 쇼의 특성을 개략하면서, 비록 소수이지만 관련 선행연구에서 노인 재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리얼리티 쇼 장르에서 노인의 재현

리얼리티란 “실재(實在)”를 의미하지만,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정서적 참여를 통해 실재감을 느끼도록 여러 장치로 구성된 장르이다[20]. 김수정에 따르면, 리얼리티 쇼란 “구체적 대본 없이 실제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 개인성(the personal)을 드러내는 극적인(dramatic) 오락물”이다[21]. 리얼리티 쇼는 실제 인물들이 현장에서 벌이는 행위와 사건들을 다큐멘터리 기법을 활용해 포착하고, 그 속에서 개인들의 캐릭터를 살려내며 허구적인 재미를 더하며 재구성된다. 따라서 현실과 허구의 혼합이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오락이다[22][2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꽃보다 할배>를 비롯한 노인 연예인을 중심으로 한 리얼리티 쇼가 재현하는 노인의 모습은 드라마나 광고와 같은 허구에서의 노인의 재현보다 시청자들이 더 사실감 있게 받아들인다고 추정할 수 있다. 리얼리티 쇼인 <꽃보다 할배>의 성공에 주목해 관련 학술지 논문과 석사논문이 두 편 배출되었다. <꽃보다 할배>가 지닌 시니어 예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한 양선희[7]의 논문과 <꽃보다 할배>의 기호학적

의미구조를 밝힌 권미영의 논문이 그것이다[24].

두 논문은 모두 <꽃보다 할배>에서 노인 재현은 기존의 부정적인 재현, 즉 쇠약하고, 무기력하고, 경제활동의 상실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이미지와는 달리, 긍정적인 새로운 노인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꽃보다 할배>가 보여주는 노인은 이른바 ‘신(新) 노년(노인)’이라고 지칭될 만큼,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배낭여행과 같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여가생활을 누리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의 모습이다. 특히 양선희 연구는 기존 리얼리티 쇼들이 유사한 포맷과 캐릭터 설정으로 진부함을 답습한데 비해, <꽃보다 할배>는 출연진의 연령을 넓혀 ‘시니어 예능’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연구는 <꽃보다 할배>에서의 연예인 노인 출연자들이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과 현실에서의 일반 노인의 모습 간의 괴리감을 지적한다[7].

이들 연구들은 <꽃보다 할배>라는 리얼리티 쇼 장르 형식 속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재현이 이뤄지고 있음을 세밀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그것은 상기 선행연구들이 남성노인만 출연하는 단일 프로그램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남성노인에 대한 재현의 결과를 노인 전체로 일반화하여 젠더에 따른 차이를 간과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물론 젠더를 넘어서 노인이라는 공통의 인식 범주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여성노인의 재현이 더 부정적으로 이뤄졌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꽃보다 할배> 이후 이를 모방해 여성노인 연예인들을 출연진으로 한 여타의 노인 리얼리티 쇼와의 비교 속에서 젠더에 따른 노인 재현의 차이는 규명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를 이끄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노인 중심의 리얼리티 쇼에서 노인 재현은 젠더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 문제 2. 시청자들은 노인 중심의 리얼리티 쇼를 젠더 차원에서 어떻게 의미화하며 수용하고 있는가?

노인의 재현은 그 표상 형식, 즉 리얼리티 쇼라는 장르 형식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리얼리티 쇼가 실재감을 주기 위한 구성에서 노인으로서의 재현의 공통점과 젠더에서의 재현 차이를 함께 드러내는 것이 연구문제 1의 초점이 된다. 연구 문제 2는 시청자들은 이러한 재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의미를 교섭해나가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2. 연구 분석 대상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행’을 테마로 하여 연예인 노인들 중심의 리얼리티 쇼인 <꽃보다 할배(tvN)>, <마마도(KBS2)>, 그리고 <꽃보다 누나(tvN)> 세 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꽃보다 누나>는 <꽃보다 할배>와 동일 제작진으로서 후자의 성공으로 인해 파생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제작진이 달라서 야기될 수 있는 재현의 차이를 없애고 젠더 차원에서 재현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꽃보다 누나>의 출연진은 중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60대 이상의 두 여성노인에게만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마마도>와 <꽃보다 누나> 각 모두 첫 시즌만 제작 방영되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은 모두 첫 번째 시즌으로 한정하였다. 아래 [표 1]는 각 분석대상의 기본 정보다.

표 1. 프로그램의 주요 정보

	<꽃보다 할배>	<마마도>	<꽃보다 누나>
방송사	tvN	KBS2	tvN
방송년도	2013	2013~2014	2013~2014
출연진 연령	이순재(80) 신구(79) 박근형(76) 백일섭(72)	김영옥(78) 김용림(76) 김수미(67) 이효춘(66)	윤여정(69) 故김자옥(62)
성별	남	여	여
젊은 출연자	40대 남성 (이서진)	40대 남성 (이태곤)	20대 남성 (이승기)
에피소드	총 8회	총 20회	총 8회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텍스트 분석과 수용자 분석방법이 활용되었다. 재현을 분

석하기 위한 텍스트 분석방법은 리얼리티 쇼의 포맷적 특성을 밝힌 김수정의 연구결과[21]에서 제시된 ‘관찰 기법’, ‘개인 인터뷰(대사포함)’ ‘인물의 개성화’를 분석 범주로 삼았다. 또한 영상기법 역시 중요한 재현 장치라는 점에서 자막과 클로즈업 쇼트, 그리고 자료화면 사용 역시 ‘영상 구성’이라는 분석 범주로 설정했다. 분석기법으로는 구조인류학자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문화인류학연구에서 도출해 낸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 개념을 활용하였다. ‘이항대립’은 특정 대상을 상호 대립되는 두 속성의 체계(구조)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대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인식 방법을 가리키며, 현대 미디어 문화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개념이자 분석기법이다.

표 2. 인터뷰 참여자 인적사항

개인	이름	나이	성별	직업
1	A	26세	여	회사원
2	B	26세	여	교사
3	C	25세	여	사진기자
4	D	25세	여	회사원
5	E	26세	여	회사원
6	F	29세	여	대학생
7	G	25세	남	대학생
8	H	34세	여	대학원생
9	I	25세	여	취업준비생
10	J	26세	여	공무원
그룹	이름	나이	성별	직업
1	K	24세	남	대학생
2	L	24세	여	대학생
3	M	26세	남	대학생

본 연구는 리얼리티 쇼를 통해서 노인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화 하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노인 층 수용자를 제외한 젊은 층 수용자인 20~30대를 대상으로 모두 13명(여성 10, 남성 3)을 개인 및 그룹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표 3]. <꽃보다 할배>와 <꽃보다 누나>를 모두 본 참여자들은 개인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3편을 모두 본 사람들은 없어서 그룹 인터뷰는 3편을 모두 시청한 후 모여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지인을 통해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으로 구했고, 2015년 9월 28일부터 열흘간 수행하였으며, 인터뷰는 평균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총 13명의 인터뷰 참여자 수가 가질 수 있는 제한성을 줄이기 위해서, 시청

자 게시판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꽃보다 할배: 유럽편>은 676건, <마마도>는 220건, <꽃보다 누나>는 884건을 모두 살펴보았으며, 경향의 파악과 특기될 사항들을 노트하여 분석에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과 게시판 분석은 크게 두 분석범주 즉, 노인에 대한 참여자들의 기존인식의 측면과 리얼리티 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응답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범주에서 노인 재현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태도를 이항대립 기법을 통해 분석해 내고, 그 특성과 함의를 파악하고자 했다.

IV. 텍스트 분석결과

1. 일상행위의 관찰에서 노인 재현과 젠더 차이

리얼리티 쇼는 관찰 카메라를 핵심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연출자의 개입 없이 대상의 일상적 행위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사실감을 창출해 낸다. 세 편의 리얼리티 쇼에서도 노인 출연자들의 하루 일과를 관찰카메라로 포착해 전달함으로써, ‘노인’이라는 존재와 삶의 리얼함을 구성해 내려고 한다. 예를 들어, <꽃보다 할배>에서 남성 출연자들이 자기 전 약을 챙겨먹고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거나 <꽃보다 누나>에서도 여성 출연자들이 비타민을 먹는 모습, 그리고 여행 시작 전 전문 의로부터 혈압체크 등 건강 상태를 확인받는 모습이 그것이다. 이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 노인의 일상적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영양제가 필요하며 잠이 없는 노인’이라는 통념을 시청자에게 확인시키며 시작한다.

남녀 ‘노인’ 간의 차이도 관찰 카메라를 통한 일상의 재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출연진 모두 아침에 거울을 보며 단장하는 모습은 남녀 노인 출연자에게 공통으로 나타나지만,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들은 카메라를 의식하는 모습이 보인다. 구체적으로 <마마도>에서 숙박 후 김용립이 카메라를 슬쩍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화장을 고치고, 또는 윤여정은 양말 신은 발 냄새를 맡다가 카메라를 발견하곤 그 행동을 바로 멈춘다. 이는 분명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16시간 넘는 촬영을 2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편집

한 결과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재현을 단순히 현실 반영이라고 소박하게 취급할 수 없다. 이러한 장면 선택을 통해서 남성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반해, 여성은 남을 의식하며 자신을 꾸민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즉, 남성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진정성 있게 제시한다면, 여성은 나이 들어도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존재라는 비진정성의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텔레비전에서의 이러한 반복적 재현을 통해서, 마치 여성의 속성은 꾸밈과 가식을 그 본질로 하는 듯이 자연화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남성은 본질적인 존재인데 반해 여성은 비본질적인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는 기존 논의를 상기시킨다.

또한 여행 떠나기 전 짐을 챙길 때, 남성 출연자들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의지하는 반면, 여성 출연자들은 스스로 짐을 챙기는 모습이 제시된다. 대조적인 이 장면에 대한 해독은 열려있다. 여기서 남성노인을 부인이 없으면 안 되는 의존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여성노인들은 반대로 자립적인 존재로서 기존의 의존적인 여성성의 관념을 재고하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또는 위의 장면을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적인 성역할 구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또는 ‘당연한’ 모습으로 여긴다면, 특별히 그것에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리얼리티 쇼의 관찰 카메라 기법에서 젠더의 차이가 드러나는 일상의 장면들은 다의성을 지니는 장면을 산출하며,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시청자의 해독에 따라 기존 관념을 지지하거나 또는 전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 개인 인터뷰에 나타난 인식 차이

2.1 여행에 대한 인식 차이: 젊음 vs. 해방

리얼리티 쇼는 개인 인터뷰라는 일종의 고백 장치를 통해서 출연진들의 개인성을 드러내고, 진정성과 실재감을 전달한다[21]. 해당 연예인 노인 리얼리티 쇼는 인터뷰 형식을 통해서 ‘여행’과 ‘나이 들’에 대한 출연자들의 생각과 느낌을 묻고 전달하는데,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인식과 태도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 먼저, 남성 노인 출연자들은 여행을 ‘젊음’과 연결시켜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배낭 여행 온 젊은이를 보며]... 아휴, 내가... 저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 제일 부러운 건 청춘이야. 아름답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깐. 우리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지. (신구)

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박근형)

... 죽기 전에... 언제 경험하우?... 앞으로도 경험 못한다. 이제. (신구)

노인 출연자들은 공통적으로 여행을 ‘젊음’의 특권이며, 도전, 기회, 가능성과 동의어로 여긴다. 이들은 “앞으로는...못한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청춘은 지나가고 미래는 얼마 남지 않은 존재로 스스로를 묘사한다. 이로써 자신들은 방송사에서 제시한 ‘여행’ 프로젝트에 동참함으로써 이런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된 사람들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꽃보다 할배>가 적극적으로 도전적인 노인들이라는 새로운 이미지와 담론을 형성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미지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젊음을 부러워하며 ‘상실과 결여’로서 노인을 이해하는 기존의 부정적인 통념이 이들 출연자들의 태도와 관념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발견된다.

여행을 젊음과 등치시키는 남성노인 연예인과 대조적으로 <꽃보다 누나>나 <마마도>의 노년의 여성 출연자들은 ‘여행’을 젊음이 아닌, 일상에서의 탈출이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간주한다.

배우, 며느리, 엄마, 아내. 1인 4역 결코 쉽지 않아요. 쉬고 싶어요. (김용림)

노년의 여성 출연자들에게 ‘여행’은 젊음의 일상, 그리고 일상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다중의 역할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특히 며느리, 엄마, 아내라는 성 역할이 중요한 책임으로 여겨짐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70대 여성 연예인 출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행은 로망이지. (김영옥)

이 발언과 함께 제시된 “설 틈 없는 여배우의 삶”이라는 자막을 통해, 여성노인 연예인들에게 ‘여행’은 남성노인 연예인들과 달리, 바쁜 삶이라는 일상의 제약을 벗어나는 특별하고 멋진 기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노인 됨’에서의 젠더 차이와 저항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라 출연자들의 태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발견된다. 남성 출연자들은 노인에 대한 지배적인 통념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저항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우리 젊었을 때 60되면 어휴 끈대들(은) 가야될 나이 다 그랬잖아. ...우린 끈대를 넘어섰지 지금. (신구)

우리를 짐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이순재)

노인을 비하하는 속어인 ‘끈대’와 ‘짐’이라는 비유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을 드러내는 용어인데, 이를 출연자들이 먼저 언급함으로써 자신들도 젊은 시절에 그러한 담론을 공유해 온 것을 드러낸다. 남성노인들이 ‘끈대’와 ‘짐’에서 표현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나 취급을 통해서 ‘노인의 정체성’에 대한 일차적 자의식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지배적인 담론에 반발하는 모습도 드러낸다.

(내 나이를) 원아홉에 묶었어요. 나이를 묶었다고 칠순이라고 생각하면 막 끔찍해요. 소름 끼칠 정도로. (백일섭)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론을 얘기하면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라고 ... 큰 짐을 남기고 가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이순재)

이처럼 노인들을 ‘짐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요구(이

순재)나 스스로를 ‘천아후’ 이상의 나이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일견 그러한 담론을 ‘노인’의 입장과 관점에서 재해석 하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러한 반발은 나이 먹었다는 것이나 ‘칠순’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백일섭의 태도를 통해서, 결국은 노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순재 역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자신의 현재를 말하지만 결국은 ‘죽음’의 틀에서 평가하고 의미화 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기존 통념을 강화한다.

한편, 여성 출연자들은 사회적 대우나 취급 측면에서가 아니라 다른 두 측면에서 ‘노인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나는 가족관계 속 자신들의 위치이고 다른 하나는 외모의 퇴락이라는 점이다.

손자, 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하고는 안 어울리는 거 같아. 아직까지 내가 소녀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사춘기 같고, 대학생 같고 그런 마음이지. 손자 가질 생각도 안나. (이효준)

여성에게 ‘노인’이라는 정체성이 단순히 고령이라는 사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손자’가 있다는 것처럼 가족 관계에서 역할과 위치를 통해 인식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여배우라는 화려한 직업과 무관하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가족 관계의 범주를 통해 정체성을 획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다른 기준은 남성노인과 달리 여성노인에게 외모의 퇴락이 ‘나이 들’을 규정하는 요소로 강조된다.

젊어서는 노력 안 해도 됐는데 늙으면.. 흥해지는 내 꼴이 정말 나도 싫은데. 나도 비참했어. (윤여정)

여성 출연자들은 얼굴에 드러난 적나라한 주름과 기미를 통해 노인이 되고 있음을 실감하며 이전보다 추해진 외모로 인해 스스로를 저평가한다.

그러나 여성들도 남성 출연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년의 주체로서 자신의 관점에서 ‘노인 됨’을 재평가하려고 하며,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태도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후배들에 대해) 그런 거 싫더라. 야, 내가 무슨 중병 앓고 있냐? 이리지. 이게 나이 먹었다는 자격지심인가 봐. (김수미)

나는 몇 십 년을 들어왔기 때문에. 왜 그래 왜? 내가 죽을 거 같아? ‘몸조리 잘하세요’ 들으면, 내가 애 낳았어? (김영옥)

후배들의 문안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을 ‘자격지심’으로 변명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이 말 속에는 유약하고 의존적인 존재 또는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서만 노인을 타자화 하는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보여준다. 자신들을 규정하는 많은 요소들 중 유독 ‘나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회에 대한 이들의 반발은 남성 출연자들보다 더 단호하다.

표 3. 고백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비교

주제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마마도>
	남성	여성	
여행	젊음, 도전	해방, 탈출	
노인 됨	사회적 대우나 취급	가족관계에서 위치와 외모의 퇴락	

3. 캐릭터 구축을 통한 노인 재현과 젠더 차이

리얼리티 쇼에서 출연자는 실제 인물로 행동하지만, 제작자들은 출연자들의 일부 특징을 부각시키고 전면화시켜서 특정 캐릭터로 구축한다. 이는 주로 반복적인 자막을 통해 이뤄지면서, 리얼리티 쇼에 서사적 재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꽃보다 할배>에서 이순재는 최고령자임에도 적극적으로 여행하며 목적지를 향해 직진하는 모습에 ‘직진 순재’라고 불리며, 신구는 제작진 앞에서 거리낌 없이 춤추고, 칭찬의 의미로 40대 이서진의 불에 뽀뽀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구요미(귀염둥이)’라는 별칭이 주어진다. 또한 ‘회장님 전문 배우’로 유명한 박근형은 여행하는 동안 아내에게 전화하고,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고, 아내를 위한 선물을 구입하는 행동으로 인해 ‘로맨티스트’라는 캐릭터가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막내인 백일섭은 곰처럼 굶든 행동과 잦은 통증 호소, 그러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불만을 쉽게

게 표출해서 ‘백신통’, ‘백곰’의 캐릭터가 부여된다.

이러한 캐릭터들은 기존의 노인들에 대한 고정관념 뿐 아니라 기존의 지배적인 남성성 관념을 전복하는 효과를 지닌다. ‘직진 순재’의 경우는, 기존의 노인 담론이 상징하는 유약하고 의존적인 노인상과 달리 지치지 않는 추진력과 독립성을 보여주며, ‘구요미(신구)’는 권위적이고 공경을 요구하는 노인[4][7]이나 과묵하고 근엄한 남성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자유분방하게 표출하는 귀엽고 정감 있는 인물로 프레임 된다. 또한 ‘로맨티스트(박근형)’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편이 아닌, 항상 자상한 일편단심의 남편의 모습이다. 이처럼 <꽃보다 할배>는 기존의 노인상 뿐 아니라 지배적인 남성성 담론 중에서 부정적인 남성성 담론을 전복시키고 있다.

백일섭만이 기존의 권위적이고 고집불통의 남성노인을 재현하는데, 흥미롭게도 곰처럼 덩치는 크지만 곰이 상징하는 힘과 에너지라는 의미는 삭제되고 단지 곰의 느낌만 강조되어, 큰 체격이 오히려 육체적 노화로 인한 통증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강조된다. 즉, 백일섭은 출연진 중 막내지만 쇠약하고 무기력한 노인이라는 기존의 노인상을 표현한다.

한편 <꽃보다 누나>와 <마마도>에서 노년 여성 출연자의 캐릭터 구성은 기존의 여성성 담론이 매우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캐릭터 구성에서 3개의 유형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가부장제적 질서에 부합하는 전통적인 여성상, 전통적 여성상에 대립되는 독립적인 여성상, 여성성을 상실한 노인상이다.

먼저 가부장제 아래 이상적인 여성으로서 ‘말없고 조신한, 애교 있고, 감성적이고, 여린’ 여성성 이미지이다. 예를 들어, 김용림은 <마마도>에서 말수 적고 외모에 신경 쓰는 조신한 모습으로 인해 ‘부잣집 딸내미 용림’으로 불리고, 막내인 이효춘은 연장자인 ‘언니’ 출연자들과 집꾼 역할을 맡은 40대 이태곤에게 어린양을 부려서 ‘애교쟁이 효춘’이라는 캐릭터를 부여받는다. 또한 김수미가 여행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강아지를 예뻐하자 ‘애견마마 수미’로 부르거나, 주변인들로부터 보호받는 연약하고 순수한 모습을 강조하며 김자옥을 ‘공주’ 캐릭터로 설정하는 것도 그에 해당된다. 캐릭터에는 모두 젠더가 분명히 각인되어 여성성의 특성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캐릭터 구축은 연약하고 조신하며 또는 감성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전형화 된 지배적인 여성성 담론을 강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독립적인 존재로서 여성노인의 재현이다. <꽃보다 누나>에서 윤여정은 빈틈 없어 보이는 기존의 이미지와 달리 문제를 일으키는 엉뚱한 모습이 부각되며 ‘트리블메이커’라는 별칭을 얻게 된다. 하지만 영어로 길을 물어보며 문제를 해결하는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적극적인 모습도 함께 제시되어 노인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전형화되어 있는 수동적인 이미지를 전복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동시에 <꽃보다 할배>에서 백일섭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캐릭터로 기능함으로써 리얼리티 쇼에 재미를 가져오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는, 전통적 여성성이 결여된 여성 ‘노인’의 재현이다. <마마도>에서 김영옥과 김수미는 제작진에게 불만을 직접 표출하고 거침없이 욕하는 모습 때문에 ‘욕쟁이 영옥이’와 ‘욕쟁이 수미’의 캐릭터를 부여받는다. 이들은 ‘조신한 여성성’을 결여하고 무성의 거칠어진 노인으로서만 부각되어 ‘욕쟁이 할머니’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세 유형의 캐릭터는 ‘할머니’, ‘딸내미’, ‘공주’로서 기존 여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체성이 규정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남성노인들이 ‘구요미’, ‘직진’, ‘로맨티스트’, ‘백곰’ 등 개인의 특성에 주목한 별칭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여성노인들의 재현은 개인성이 강조되지 않고 젠더 차원이 강조되는 차이를 드러낸다.

표 4. 인물의 캐릭터와 특성

성별	비전형적 젠더 이미지	전형적 젠더 이미지	이항대립
남성	직진(순재), 구요미(신구), 로맨틱스트(박근형)	백곰(백일섭)	추진 ↔ 안주 자립 ↔ 의존 친근함 ↔ 거리감 순애보 ↔ 가부장
여성	욕쟁이(김영옥/김수미) 트리블메이커(윤여정)	부잣집딸내미(김용림), 애교쟁이(이효춘) 공주(김자옥)	억척 ↔ 우아 자립 ↔ 의존 능동 ↔ 수동

4. 영상 구성에 나타난 노인 재현

리얼리티 쇼에서는 클로즈업과 자료화면, 그리고 특히 자막처리의 세 가지 영상 구성 방식을 통해서도 출연 노인들의 재현적 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 먼저 주목 효과와 감정적 개입을 긴밀히 불러오는 장치로 많이 활용되는 클로즈업 쇼트를 보면, <꽃보다 할배>에서는 남성 출연자들의 신체 일부가 중점적으로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리 통증을 투덜대며 느리게 걷는 백일섭의 다리, 빠르게 걷는 이순재의 다리가 자주 클로즈업 되고, 아침에 복대를 두르는 심구의 모습에서 튀어나온 복부, 그리고 양상한 하체가 클로즈업 된다. 그에 반해, <마마도>와 <꽃보다 누나>에서는 여성 출연자들의 표정이 클로즈업으로 주로 포착된다. 예를 들어, <마마도>에서 이효춘과 김수미가 ‘어머니’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얼굴과 <꽃보다 누나>에서 윤여정이 답답하게 행동하는 이승기를 향해 짜증내는 표정이 클로즈업으로 강조 된다. 이를 <꽃보다 할배>의 클로즈업 사용방식과 비교해보면, 여성들은 감정적 존재로서 ‘젠더’ 정체성이 강조되는 반면, 남성들은 육체적 건장함을 상실한 ‘노인’의 신체적 정체성이 강조되는 재현의 차이를 보여준다.

두 번째로 출연 연기자들의 과거의 모습이나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화면 삽입 기법은 특히 출연자들이 지나간 청춘을 그리워하는 얘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한다. 시청자들은 노인 출연자들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재미를 주면서 동시에 출연자들에게 더욱 친근함과 사실감을 효과적으로 불러오는 장치로 기능한다. 하지만 과거 자료화면의 사용에서도 성별에 따른 재현의 차이가 드러난다. <꽃보다 할배>에서는 주로 남성 출연자들이 맡았던 배역을 중심으로 과거 자료화면이 제시되고, <꽃보다 누나>와 <마마도>에서는 여성 출연진의 젊은 시절의 미모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자료화면이 사용된다. 이로써 남성은 수많은 연기활동 경력과 성취를 쌓은 노인으로 표상되는 반면, 여성은 미모를 중심으로 제시된 과거는 그러한 미모를 상실한 노년의 현재와 대조되게 된다. 이는 남성노인이 그들의 업적을 대상으로 평가되는 반면 여성노인은 외모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젠더에 따라 불공평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기존 논의들을[13] 확인시켜준다.

마지막으로 리얼리티 쇼에서 자막은 상황들을 흥미롭게 규정하여 재미를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기제인데, 자막 분석결과 세 리얼리티 쇼는 젠더에 따라 자막의 내용에 차이를 보였다. <꽃보다 할배>의 경우, 주로 ‘할배(노인)’, ‘나이’, ‘마지막’ 등을 강조하는 자막이 자주 등장하는 반면, 여성 출연자들이 나오는 <꽃보다 누나>와 <마마도>에서는 ‘어머니’, ‘여배우’, ‘누나’ 등의 자막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남성노인에게는 ‘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 반면, 여성 출연자들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표 5. 영상 구성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재현 비교

담화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마마도>
	남성	여성	
클로즈업	신체부위, 행동에 집중 신체 → 기력 상실 → 노인	얼굴 표정(감정)에 집중 얼굴 → 감정적 → 여성	
과거 자료화면	과거(경력) → 현재 직업 활동 경력(과거) = 성취(현재)	과거(외모) → 현재 미모(과거) → 상실(현재)	
자막	‘노인’, ‘나이’ 강조	‘여성’ 강조	
강조차원	노인	젠더(여성)	

V. 수용자 인터뷰 분석결과

세 편의 리얼리티 쇼에서 노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인터뷰 참가자들의 의미작용에서 세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는 노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이 참여자의 의미 해독에 끼치는 영향이고, 두 번째는 리얼리티 장르에 대한 태도가 리얼리티 쇼의 노인을 의미화 하는데 주는 영향이며, 세 번째는 젠더에 대한 기존 관념과 태도가 재현된 노인 해독에 개입하는 모습이다. 이를 순서대로 다음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노인에 대한 기존 인식과 영향

먼저 인터뷰 참여자들이 평소 노인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인터뷰 참여자들 중 노인을 연륜과 지혜의 존재로 이해하는 참여자는 한 명에 그쳤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사회의 노인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첫째, 경제적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서 사회적인 약자

이며, 둘째, 장유유서의 전통 아래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어려운 존재라는 것이다. 셋째, 노인은 인터뷰 참여자들 사이에서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성적인 특성을 잘 느낄 수 없지만,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적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은 기존 연구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4][13]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기존 인식은 리얼리티 쇼에서 누가 노인으로 느껴지는지에 대한 해독에도 영향을 미쳤다. <꽃보다 누나>에서 김자옥이 윤여정 보다 더 젊지만, 인터뷰 참여자들은 김자옥을 더 노인처럼 여겼다.

김자옥은 약간은 윤여정이랑 비교되게 적극적이라기 보단 소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수동적? ...윤여정보다는 김자옥이 더 조심스럽게 여행해서 그런지, 노인의 느낌이 들었던 거 같아요 활기찬 느낌이 없으니까. (C, 여)

이는 수동적이고 유약한 기존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기초해서 노인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노인’으로 해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장르에 대한 태도 차이와 해독

2.1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노인에 대한 이해

리얼리티 쇼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고 여기는 대다수의 수용자들은 노인을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인물로 해독하며 스스로의 인식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꽃보다 할배>에서 노인 출연자들이] 일정을 짜고 무엇을 보겠다는 열정을 보이고, 저보다 더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노인에 대한 편견이 깨졌던 거 같아요. ... 중략 ... 저도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보고 나서 여행 계획을 짰는데, 계획 짜는 게 귀찮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여행을 짜고 그런 모습이 되게 저보다 낫다 생각했어요. (C, 여)

이처럼 긍정적인 해독을 보인 참여자들 중 몇몇은 리얼리티 쇼 장르와 드라마 장르에서 노인의 재현을 비교

하였다. 그들은 드라마는 허구인데다가 가부장적 이미지의 노인이 자주 나타나는데 비해, 리얼리티 쇼는 ‘있는 그대로’, 노인 개인 각자에 초점이 맞춰져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리얼리티 쇼에서의 긍정적인 노인 모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특히 출연자들의 감정 분출의 장면에서 특히 리얼리티 쇼가 ‘리얼’하다고 느꼈고, 이는 노인을 친근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데도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꽃보다 할배>에서 ‘백일십’ 출연자가 짜증내는 모습에 대해 “결국 노인들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D, 여).”라는 응답도 있었다. 즉,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이미지의 ‘노인’이라는 대상화된 집단범주에서 벗어나 노인을 감정을 지닌 ‘개인’으로서 가깝게 의미화 하는 것을 보여준다.

2.2 ‘연출자의 의도적 결과’로서 노인에 대한 이해

리얼리티 쇼를 현실 그대로의 재현으로 수용한 인터뷰 참여자들과는 달리, 13명 중 4명의 참여자들은 리얼리티 쇼에서 노인의 모습은 리얼 그 자체가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에 따른 결과라고 말한다. 특히 리얼리티 쇼에 나타난 노인들은 ‘연예인’이라는 특별한 존재이므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노인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응답자들은 잘라 말한다.

리얼리티 쇼는 쇼이고 실제로 보는 노인들은 격차가 있다고 생각해. ... (중략)... 그래서 [리얼리티] 쇼를 재밌게 보긴 했지만, 노인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은 거 같아요. (I, 여)

기존 노인의 안 좋은 모습의 편견을 깨려고 리얼리티 쇼에서 그걸 강조한 거 같아요. (J, 여)

인터뷰 참여자들은 리얼리티 쇼에서 보여주는 긍정적인 노인 이미지가 사실 제작자의 의도적인 결과일 뿐 현실 모습이 아니라고 여기며, 해당 쇼들을 단지 오락적으로만 소비하고 있었다. 특히 리얼리티 쇼의 출연진이 연예인이라는 점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점은 비단 재현된 ‘노인’이라는 대상을 넘어

서, 수용자들이 다양한 장르들에 대한 경험 및 이해, 리얼리티 쇼라는 장르를 현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출연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결과 측면에서 보자면, 과반수가 넘는 인터뷰 참여자들이 리얼리티 쇼를 현실 그대로라고 여기며 리얼리티 쇼에서 노인 재현을 긍정적으로 해독하며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드러냈다.

3. 시청자 해독에 나타난 젠더 질서의 재생산

인터뷰 참여자들은 세 편의 리얼리티 쇼에서 나타난 출연자들의 감정표현을 기존의 젠더 이미지에 따라 해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마도>에서 박경리 기념관 방문에서] 김수미는 <어머니>라는 시를 읽고 눈물 맺히고, 박경리가 여자 작가라는 점에서 할머니들이 공감해주고 작은 거에 감동하는 것을 보니까 '소녀 같구나' 생각했고, 여성스럽다고 생각했어요 (L, 여)

세심한 감정과 그것의 분출을 여성성이라고 인식한 것은 비록 기존의 여성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 자체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시청자 게시판에서는 여성노인 출연자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해 더 감정표현이 많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꽃보다 누나>의 시청자 게시판의 1/3이, <마마도>에서는 절반 이상의 시청자들이 여성 출연자들의 솔직한 감정표현과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재미도 없고, 김수미 같은 애들은 만날 엄마 보고 싶다고 짜기나 하고 인간 극장인가? <꽃할배>가 언제 아빠 찾는 부성에 프로였나? 마마도 뭐하는 프로그램인지. (<마마도> 시청자 게시판, 37번)

젠더에 따라 대조적인 평가는 <꽃보다 할배>에서 백일섭이 장조림 반찬통을 제작진 앞에서 내던지며 화를 냈던 에피소드에 대한 반응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꽃보다 할배> 시청자 게시판에서 백일섭의 짜증내는 모

습에 대해 공감이 간다는 의견이 2/3 정도를 차지한 반면, 공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1/3 정도를 차지했다.

한 인터뷰 응답자는 남성노인이 독립적인데 비해 여성노인은 의존적이고 마치 아랫사람을 부리는 태도를 보인다고 부정적으로 해독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여배우라는 직업적 특성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꽃보다 할배>에서는 이서진이 짐을 들어준다고 해도 할아버지들이 거절해요. 그런데 <꽃보다 누나>에서는 할머니들이 승기를 찾는단 말이지. 그분들에게 승기는 말 그대로 짐꾼인 거지. 손자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여배우의 특성인 거 같아요. 아무래도 여배우들은 디바(Diva)잖아요. (G, 25세)

남에게 일을 시키거나 짐을 맡기는 여성 출연진의 모습에서 의존적인 여성의 모습을 남성과 비교해 지적하지만, 정작 남성들의 의존적인 모습에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앞의 텍스트 분석에서 제시한 것처럼, 여행 전에 남성 출연자는 부인이 짐을 꾸려주고 여성 출연자는 직접 짐을 꾸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런 차이를 주목하며 언급한 인터뷰 참여자는 한명도 없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성 역할 구분을 당연하게 여겨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뷰 참여자들과 시청자 게시판의 수용자들 대부분이 노인 출연의 리얼리티 쇼를 단순히 노인이라는 범주에서만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범주에서도 비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여성은 감정적이고 남성은 감정을 절제하는 이성적 존재라는 기존 젠더 관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으며, 유사 사례에서 출연진 남성들에게는 좀 더 관용적이고 여성들의 경우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차별적인 평가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여성 출연진에게는 노인이라는 범주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 노쇠와 수동성, 의존성, 경제적 능력의 상실 등 이외에 '외모'의 관점에서 평가하려는 남성 인터뷰 참여자의 응답이 있었다.

<꽃보다 할배> 할아버지들과 비교해서 <마마도>에

서 김영옥과 김수미랑 김용림은 확실히 할머니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반면, 이효춘은 할머니보다 아줌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효춘 빼고 나머지는 외모나 목소리에서 나이를 먹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확실히 외모적으로 나이가 더 들어 보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효춘은 워낙 동안인 거 같고 (K, 남)

인터뷰에서 남성 출연진에게 행동이나 신체 자체가 아니라 외모나 목소리를 통해서 노인으로 느꼈다는 응답은 없는 반면 여성 출연진에게는 그러한 응답이 나타나는 점은 출연진과 수용자 모두 남성보다 여성에게 외모적 변화라는 기준을 더 중요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는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외모로 노화를 평가받아 더욱 차별적인 위치에 놓인다는 기존 연구를[13] 지지한다.

수용 인터뷰에서 가장 눈에 띈 점은 이들 인터뷰 참여자들이 노인 출연진의 젠더에 따라 리얼리티 쇼와 출연자들을 어떻게 해독하는가라는 점 자체보다, 바로 이들 출연진을 호명하는 방식이었다. 인터뷰 참여자들 모두 남성 출연자들을 언급할 때는 ‘신구 할아버지’ ‘이순재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반면, 여성 출연자들이 남성 출연자들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한 두 살 적은 경우조차도 그냥 이름을 불렀다. 예를 들어, ‘김영옥은..’ ‘김용림은..’ ‘윤여정은..’으로 호칭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개진하였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까? 응답자 13명중 10명이 여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남성노인에게 공경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가 내면화 한 가부장제의 젠더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발현(또는 주디스 버틀러의 의미에서 수행[25])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리얼리티 쇼에서 노인에 대한 재현과 해석을 젠더 차원에 주목해 고찰하고자 했다. 먼저 재현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그 결과가 갖는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편의 리얼리티 쇼에 나타난 노인 재현은 전형적인 기존의 이미지보다는 대안적인 노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표상해내고 있었다. 즉, 기존의 노인이 신체적으로 쇠약하고 사회적으로 주변적이고 완고한 권위적인 모습을 의미한다면, 리얼리티 쇼에서 노인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일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리얼리티 쇼에서 노인의 재현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편향적인 담론을 전복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젠더 측면에서 노인의 재현을 살펴보면, 기존의 노인들이 무성적인 존재로 재현되었던 기존의 관습과는 달리, 본 리얼리티 쇼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지닌 존재로 노인들을 재현하고 있었다. 남성노인이 무성적인 듯 여겨지는 것은 흔히 남성성을 의미하는 신체적 힘,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권위, 지위, 경제활동)을 상실했다고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꽃보다 할배>에서 남성노인들은 캐릭터를 통해서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남성으로서 특성뿐 아니라, 과거 화면자료를 통해서 오랜 배우경력을 성취로서 부각시키며 ‘남성성’을 복원시킨다. 이는 사회적 지위와 신체/물리적 힘에 기초한 남성성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을 재생산하는 측면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로맨티스트’ 캐릭터 등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무관심한 가부장제적 남성성을 전복하면서 다양한 남성성 담론의 가능성 역시 보여주고 있다.

남성노인에서 보여주는 재현의 다양성에 비해, 여성노인에게 있어서 여성성의 재현은 협소하며 이중의 칼날로 작용하고 있었다. 여성 출연자들은 외모의 매력, 조신한 모습, 그리고 감정적 표현 등의 전통적인 여성성을 재현함으로써 가부장제의 전통 여성상을 강화하고 있었다. 동시에 노인이 되어 외모의 매력이나 조신함을 잃게 되는 경우, ‘육쟁이 할머니’처럼 여성성 요소를 상실한 무성적인 거친 존재로 취급되게 된다. 즉, 가부장제 아래 적합한 여성성을 지니든지, 아니면 여성성을 잃는 식의 선택밖에 없는 이중적 굴레를 볼 수 있다.

셋째, 출연자들의 인터뷰에서 노인의 자의식에 대한 젠더 간 차이가 드러났는데, 남성 출연진이 노인의 정

체성을 사회적 위치에서 찾는데 반해 여성들은 가족관계에서 자신의 위치, 그리고 외모의 퇴락에서 노인의 자의식을 갖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시청자의 해독에 있어서는 인터뷰 분석을 통해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수용자가 리얼리티 쇼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리얼리티 쇼에 재현된 대안적이고 긍정적인 노인상을 현실로 수용하거나 또는 오락적 구성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터뷰 참여자의 다수가 여성이었지만, 여성노인들의 감정적 표현과 보호받은 모습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게시판 시청자들도 유사 사건에서 남성 출연자보다 여성 출연자를 더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발화주체의 성별과 무관하게 여성에게 더 가혹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녀 출연자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호칭 차이는 내면화된 가부장제적 남녀 차별의 인식과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리얼리티 쇼에서 재현들은 한국사회에서의 지배적 관념에 따라서 매우 선별적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도로 이뤄진 노인 중심의 리얼리티 쇼가 기존의 노인에 대한 재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특히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노인 젠더의 측면에서 텍스트 분석과 수용자 해독을 고찰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해서, 장르적 측면에서는 개인성을 강조하는 리얼리티 쇼 장르의 특성이 노인 재현에서 열어 놓을 수 있는 다양성을 볼 수 있었고, 동시에 장르 자체에 대한 태도가 해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제적 측면에서는 재현뿐 아니라 해독에서도 노인 이미지와 남성성과 여성성이 복합적으로 관계하면서 기존 젠더 질서를 전복하기도 하지만 여성에게는 불리하게 재생산되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가 지닌 한계 역시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수용자 해독에 있어서 남성 인터뷰 참여자의 수가 절반에 이르지 못해서, 수용자의 젠더에 따라 노인들의 젠더적 재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체계적

으로 밝힐 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세 리얼리티 쇼 모두 노인 출연자들이 연예인이라는 특수 집단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현실 일반 노인에 대한 재현이나 해독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수용자의 성별 비율과 일반인 출연자를 대상으로 관련 주제를 고찰하는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1] <http://osen.mt.co.kr/article/G1109760183>
- [2] G. Gerbner, L. Gross, N. Signorielli, and M. Morgan, "Aging with Television: Images on Television Drama and Conceptions of Social Reality," *Journal of Communication*, Vol.30, No.1, pp.37-47, 1980.
- [3] L. R. Hatch, "Gender and Ageism," *Generations*, Vol.35, No.1, pp.6-10, 2005.
- [4] 박주연, 김숙,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노인의 가족 내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7권, 제2호, pp.185-206, 2013.
- [5] 박주연, 김숙, "텔레비전 시사 및 교양 프로그램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2호, pp.281-300, 2014.
- [6] 권미영, 노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포맷과 서사성 및 의미 구조: *tvN <꽃보다 할배>*에 대한 기초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7] 양선희, "리얼 버라이어티 쇼의 진화: <꽃보다 할배>로 본 시니어 예능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방송학보*, 제29권, 제4호, pp.322-356, 2015.
- [8] 변재란, "여성, 할머니 그리고 나이 들의 재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108-118, 2012.
- [9] J. Améry, *Über das Altern. Revolte und Resignation*, 1968, 김희상 역, *늙어감에 대하여: 저항과 체념 사이에서*, 돌베게, 2014.
- [10] S. de Beauvoir, *La Vieillesse 1*, 1970, 홍상희, 박혜영 역, *노년: 나이 들의 의미와 그 위대함*, 책

세상, 2002.

[11] 신경아,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와 노인의 경험 : 재가노인과 시설거주 노인의 경험 연구,” 한국사회학, 제45권, 제4호, pp.64-96, 2011.

[12] 강진숙, “노인여성의 미디어재현과 차별에 대한 인식 연구 : 20대 대학생들과의 초점집단인터뷰 (FGI)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제24권, 제1호, pp.111-138, 2012.

[13] C. Krekula, “The Intersection of Age and Gender: Reworking Gender Theory and Social Gerontology,” *Current Sociology*, Vol.55, No.2, pp.155-171, 2007.

[14] 김선영, “텔레비전 광고의 한·일 노인 정체성 비교,” 한국사회학, 제43집, 제5호, pp.133-169, 2009.

[15] 양정혜, “TV 광고가 재현하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7권, 제1호, pp.72-106, 2011.

[16] 김미혜, “인터넷신문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분석: 오마이뉴스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3권, 제1호, pp.13-30, 2003.

[17] 김주미, 한혜경, “TV 건강프로그램의 ‘노화의 의료화’ 의미화 방식 - KBS <비타민>의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61호, pp.159-179, 2013.

[18] 전성희, “TV 드라마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와 노년 에 대한 인식 :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을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제35호, pp.55-86, 2011.

[19] 이동욱, “노인여성의 몸과 미의 기준,” 여성학연구, 제24권, 제6호, pp.123-157, 2014.

[20] 윤태진, “정서적 참여와 실제 (reality) 의 재구성,” 방송문화연구, 제23권, 제2호, pp.7-36, 2011.

[21] 김수정, “글로벌 리얼리티 게임쇼에 나타난 ‘자기통치’의 문화정치: <프로젝트 런웨이>와 <도전 슈퍼모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6호, pp.7-44, 2010.

[22] R. Kilborn, “How real can you get?: Recent developments in ‘Reality’ Televis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9, No.4, pp.421-439, 1994.

[23] 홍석경,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현실구성 : 현실과 허구의 혼합을 통한 텔레비전의 장르 형성에 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제16권 제1호, pp.257-280, 2004

[24] 권미영, 노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포맷과 서사성 및 의미 구조: *tvN <꽃보다 할배>*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5] J. Butler, *Gender Trouble*, 1990,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서울: 문학동네, 2008.

저 자 소개

오 은 혜(Eun-Hye Oh)

준회원



- 2012년 8월 : 국립한밭대학교 영어과(문학사)
- 2016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문학석사)

<관심분야> : 문화연구, 미디어콘텐츠, 영상 커뮤니케이션

김 수 정(Sujeong Kim)

정회원



- 2003년 6월 : Univ. of California -San Diego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 2004년 10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관심분야> : 대중문화이론, 미디어콘텐츠, 글로벌대중문화